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BONELESS MERCIES  
가제 : 본리스 머시 소녀 용병대  
저자 : April Genevieve Tucholke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8년  
분량 : 약 80,100 words  
장르 : YA 소설



- \* 출판사 여섯 곳이 참가한 경매에서 수십만 달러 중반 규모로 북미 판권 계약 체결
- \* 『베오울프』를 용병으로 살아가는 ‘남자 같은 여자들’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독특한 이야기

남자로 태어나면 수많은 미래가 펼쳐지지만 여자로 태어나면 꿈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네 명의 소녀들이 있다. 프레이, 오비, 주니퍼, 루나, 네 소녀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죽음을 앞당기는 용병이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아버지 뺄, 할아버지 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픈 젊은 여자들, 약도 없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환자들, 세상을 살아가기엔 슬픔과 외로움이 너무 커서 사는 것이 고역인 사람들이 ‘본리스 머시’라 불리는 이 네 소녀를 찾아온다. 검은 색 망토를 두른 채, 소녀들은 이들이 부탁한 사람, 혹은 그 당사자를 죽음 이후에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한다.

생김새도, 성격도, 출신도 제각기 다른 프레이와 오비, 주니퍼, 루나는 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의뢰 받은 일을 처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세상을 떠돌아 다닌다. 프레이는 열두 살에 엄마아빠가 둘 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삼촌 손에 이끌려 어느 식당의 부엌 하녀로 팔려갔다. 배도 만들고 고기도 잡던 아빠, 베를 짜서 옷감을 만들던 엄마와 함께 했던 오붓했던 삶은 그걸로 완전히 끝이 났다. 아직 어려서 부엌 허드렛일만 주구장창 시키던 식당 주인은 몇 년이 지나 프레이가 다 큰 소녀로 성장하자 이제 부엌 말고 침실에서 일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새카만 여주인은 선하게 생긴 얼굴과는 영 딴판인 사악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였다. 아무리 애원해도 여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프레이는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도망쳤다. 그리고 하염없이 헤매던 숲 속에서 본리스 머시를 키우는 시기와 마주쳤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어쩌면 시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찾아낸 것인 지도 모른다고 프레이는 생각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사연으로 시기의 용병, 시기의 학생이 된

소녀들은 본리스 머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 같은 실질적인 정보 외에도 시기는 이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 신을 두려워해야 하고 이들이 ‘표적’이라 부르는 희생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도 모두 가르쳐주었다. 그렇게 완벽한 살인 용병이 된 네 소녀는 은밀한 요청을 받아 규칙대로 넷이 몸을 누일 곳,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만 받고 사람들을 죽음의 세상으로 안내했다.

프레이는 이 일을 하면서도 이미 시기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몰래 이어왔다. 죽어가는 희생자가 이름을 물으면 본명을 그대로 말해주고, 죽은 이의 물건, 가령 잘라낸 머리카락 같은 걸 다른 소녀들이 모르게 주머니에 챙겨오곤 했다. 이 일이 아니면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소녀들, 선택권이 없는 삶에 그런 사소한 행동이 프레이에게 작은 행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명예와 영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닌 존중 받는 존재가 되고픈 프레이의 희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다들 헛된 생각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꿈으로 인해 결국 용병으로 일하는 생활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때, 프레이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온갖 방법이 동원됐지만 그 괴물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무고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소식에, 프레이는 이 일이 자신은 물론 본리스 머시로 세상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소녀들 모두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두침침한 지하세계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만 한다. 무시무시한 괴물을 잡으러 나선 프레이는 곧 희생의 진정한 의미와 늘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담대함, 명예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프레이의 선택은 본리스 머시만이 아닌, 모든 여성들과 소녀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죽음이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녀들, 그 우울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소녀들이 벌이는 모험과 마법 같은 이야기가 신비한 분위기가 가득한 배경 속에서 펼쳐진다.

#### <저자 소개>

에이프릴 제네비브 투홀케(April Genevieve Tucholke)는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Between the Spark and the Burn』, 『Wink Poppy Midnight』 등을 쓴 소설가로 여러 작품이 미국 ‘주니어 도서관협회’ 선정도서, YA 도서관서비스협회(YALSA) 최우수 도서 등으로 선정됐다.

제목 : SUNFLOWERS IN FEBRUARY

가제 : 2월의 해바라기

저자 : Phyllida Shrimpton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8년 2월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은 소녀, 영혼만 남아 세상을 떠돌다 남동생의 몸에 잠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사건들
- \* 죽음과 사별, 이별과 우정, 가족간의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안겨주는 인상적인 데뷔 소설

어느 토요일, 친구 베스와 함께 쇼핑하러 간 릴리는 사권 지 6주 3일째 되는 남자친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티셔츠를 찾았다. 게다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귀걸이까지 발견한 바람에, 릴리는 집에 돌아가는 차비를 털어 결국 귀걸이도 손에 넣고 말았다. 엄마가 알면 혼날 것이 뻔했기에 조금 늦게 출발한다고만 연락하고, 남은 동전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만 버스를 타고 간 뒤 집까지 걸어갔다.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사서 한껏 기분 좋게 걸어갈 때 이미 주변은 어스름이 내려 앉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릴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분명 핸드백과 쇼핑한 물건들을 손에 들고 집에 빨리 가려고 길을 가로질러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기억이 휘발됐다. 정신 차리니 풀밭에 앉아 있고, 가방과 물건은 좀 떨어진 곳에 진흙탕 속에 떨어져 젖어 있다. 주변은 환하게 밝아서 아침이 온 것 같았다. 왜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여기에 있는지, 얇은 옷만 걸치고 있는데 하나도 춥지가 않은지, 무엇보다 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릴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경찰차와 앰블런스가 속속 도착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야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인 쪽으로 다가간 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혀를 꼰꼰 차며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곳에, 릴리 자신이 누워 있었다. 다리가 희한한 각도로 꺾이고 목도 위험하게 꺾인 채 습기가득한 흙 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다. '죽었다'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서야 문득 정신을 차린 릴리는 고향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죽은 몸에서 빠져 나온 영혼, 릴리의 영혼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왜 하늘나라로 떠나지 못하고 직접 끔찍한 자기 시체를 보면서까지 여기 남아 있을까? 릴리는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들것에 실려 앰블런스에 실려가는 자기 몸을 하염없이 따라간 릴리는 엄마아빠, 쌍둥이 남동생 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습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충격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는 부모님을 보면서 릴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그 모습이라도 못 보

면 좋으려만,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릴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도 남동생 벤에게서 나온 제안이었다.

릴리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어느 밤에 벤은 릴리에게 잠시 동안 자기 몸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호기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인 릴리는 열다섯 살 소년의 몸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신기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자아이 몸이라니! 벤이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몸을 빌린 동안 릴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의도치 않은 실수가 계속 일어난다. 벤의 몸으로 학교에 가서 벤처럼 행동하려다 온갖 우스꽝스러운 소동이 벌어지고,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 낯설고 특별한 시간에 폭 빠진 릴리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대로 계속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벤에게 몸을 언제 돌려줘야 할까? 하늘이 정한 진짜 작별의 시간은 언제일까?

열다섯 살 소녀가 죽음과 슬픔, 남의 몸을 빌려서 사는 재미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더 없이 진솔하고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영똥한 상황과 접목시켜 따뜻하게 그려낸다. 릴리의 솔직한 감정은 독자를 눈물짓게 하다가도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놀라게 하고, 다시 눈물을 터뜨리게 만든다. 감동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필리다 쉬림슨(Phyllida Shrimpton)은 대학원에서 인력관리를 공부한 뒤 십대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에섹스에 살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 등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치고 직접 작품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살고 있다.